

# 조선 후기 佛殿내 儀式의 성행과 佛像의 造形性

宋 殷 碩\*

- I. 서론
- II. 불전 내부 구조의 변화와 법회의 활성화
- III. 불단의 높이 변화와 불상의 조형성
- IV. 결론

## I. 서론

미술품들은 대부분 일정한 목적과 의도에 의해 제작되며, 그중에서도 불교미술을 비롯한 종교미술품은 종교의 전파나 교화를 위한 매우 뚜렷한 목적을 갖고 제작된다. 불교미술은 신도들의 예배를 위한 조각(불상) 또는 그림(불화), 장엄용 공예품(불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 예배의 대상으로 제작되는 불상은 특정한 佛殿, 특정한 佛壇 위에 봉안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갖고서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존상의 크기, 배치 등은 불전 공간의 크기와 형태에 의해 근본적인 제약을 받는다. 또한 조각가는 어느 위치에 불상이 놓일 때 가장 원만한 상호를 배관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불상을 배관할 때 가장 외경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 등등 예배상과 예배자의 관계를 세밀하게 고려한 후 불상을 제작하게 된다. 예배자에게

\* 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도1 惠熙, 〈木造藥師佛坐像〉, 1677년, 高 107.5 膝幅 72.5cm, 全州 日出庵 (송은석)

불교의 신성한 가르침을 잘 전달하고, 예배자와 예배상 사이의 종교적 교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불상 봉안의 목적이라면, 조선 후기에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사찰 불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들은 이러한 목적을 훌륭히 이루어 낸 대표적인 조각품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 조성된 불상들은 그 이전 시기에 제작된 조각품들보다 예술적 완성도가 낮으며, 종교적 신성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신체에 비해 머리가 커 비례가 적당하지 않고, 신체의 양감이 줄어들었으며, 사각기둥을 쌓아 놓은 듯 입체감이 적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불상들보다 예술적 완성도가 낮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또한 등과 목이 구부정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도 조선 후기 불상의 조형적 특징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런 조형은 抑佛崇儒 정책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도1). 이러한 조선 후기 불상의 조형은 고려시대 이전의 불상들과 매우 다른 취향이며, 조선시대 15세기 불상들과도 차이가 크다. 불상의 신체에서 양감과 입체감이 줄어드는 경향은 고려 말 이후 조선시대 전반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것 같은 모습은 임진왜란 이후의 불상에서 특히 강



도2 〈佛壇〉, 高麗, 木造・彩色, 高 142.8 上面 192.5×414.5cm, 安東 鳳停寺 極樂殿  
 (『鳳停寺 極樂殿 修理工事報告書』)

조된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조형의 불상은 조선 초기인 15세기부터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에 들어서이다. 이러한 불상 조형 변화의 배경에는 불상을 중심으로 佛壇, 臺座, 後佛壁, 마루, 儀式 등 불전 내외의 다양한 종교 요소들이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들 제 요소들이 17세기 불상 조형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추정된다.

## II. 불전 내부 구조의 변화와 법회의 활성화

### 1. 불전 내부 구조의 변화

#### 1) 불단의 일반화와 불전 내 불단 점유비의 확대

불단은 불상을 봉안하기 위한 대좌가 놓이는 佛壇의 기능과 공양물을 진설하기 위한 공양대의 기능을 겸한 장치로, 조선 후기 불전에 많이 설치되었다.<sup>1</sup> 멀리 통일신라 8세기의 석

<sup>1</sup> 불단은 불상을 봉안하고 공양물을 진설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전체 모양이 수미산처럼 생겼기 때문에 須彌壇으로도 불리우지만 조선시대 불단에는 卓子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佛卓'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불상을 안치하는 넓은 단이라는 의미로 흔히 쓰이는 불단을 사용하겠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許詳浩, 「朝鮮時代 佛卓莊嚴 研究」(동국대학교대 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p. 6-10 참조.



도3 <臺座>, 15세기, 石造,  
高 91.0cm, 洪城 高山寺 大光殿  
(『한국의 사찰문화재』)



도4 <佛壇>, 1430년 추정, 木造・彩色, 高 111.0 天板 201.0×318.0cm,  
康津 無爲寺 極樂殿 (송은석)

굴암을 비롯해 고려시대의 榮州 浮石寺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신라, 고려의 불상 들에는 불단이 없이 대좌만이 설치되어 있었다. 불단은 고려 후기에 이르러 대좌를 안치한 초기적인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존 최고의 목조 건물의 하나인 안동 鳳亭寺 극락전에 설치된 불단이 그 예이다(도2). 비록 공양 및 예불용 범구를 진설하기 위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불상 대좌를 안치할 수 있는 넓은 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조선시 대에 조성된 장방형 평면을 갖는 전형적인 불단의 시원적 형태라 할 수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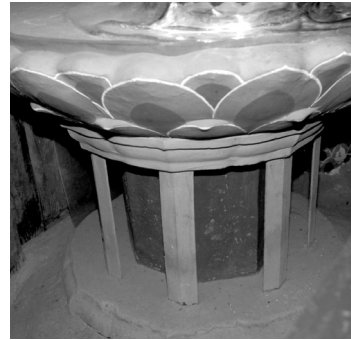
그러나 봉정사 극락전에 불단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고려 후기에 불단이 일반화되었다 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고려 후기에 조성된 비로자나불상이 안치되어 있는 서산 개심사 대 웅전이나 포항 보경사 적광전에 원래는 대좌만이 설치되어 있다가 15-16세기에 가서야 가리 개 형태의 불단이 새로 설치된 예에서 보듯이, 고려 후기에 불단이 설치되지 않은 불전이

<sup>2</sup> 李康根, 「17世紀 佛殿의 莊嚴에 관한 研究」(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pp. 40-41; 허 상호, 앞의 논문, pp. 40-41.

<sup>3</sup> 「浦項 寶鏡寺 佛壇 造成記」 1569년, 寂光殿 불단에 陰刻 (허상호 석문): “發願文……隆慶三年己巳元月日 成……”;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경상 북도 I 자료집(2007), p. 240. 개심사 대웅전과 보경사 적광전에 불상 대좌를 둘러싸고 있는 목조 장치는, 불상 대좌를 안치하고 공양물을 진설하는 용도를 엄밀하게 갖춘 불단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불상 대좌가 이미 설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시에 만들어지던 불단과 같은 모양으로 고안된 장치이며, 대좌와 합쳐 불단을 이루고 있 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불단으로 칭하도록 하였다. 가리개 형태의 불단에 대해서는 허상호, 앞의 논문, pp. 57-63 참조.



도5 〈佛壇〉, 1569년, 木造・彩色, 高 92.0 天板 159.7×358.0cm, 浦項寶鏡寺寂光殿 (허상호)



도6 〈臺座〉, 高麗, 浦項寶鏡寺寂光殿 (허상호)

있었기 때문이다.<sup>3</sup> 조선 초기에 들어서도 불단이 전면적으로 설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양식을 보이는 소조불상이 봉안되어 있는 洪城高山寺의 대광전처럼 불단이 없이 대좌만이 설치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도3).

현존하는 최초의 완전한 불단은 강진 無爲寺 극락전의 불단이다(도4). 이 불단은 극락전과 함께 1430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늦어도 후불벽화가 제작된 1476년에는 완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4</sup> 무위사 극락전 불단은 봉정사 극락전 불단과 매우 유사하나 공양물을 진설할 수 있도록 天板이 확장되었고, 불단 뒷면에 수장고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설치한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sup>5</sup> 즉, 조선 초기 15세기의 무위사 극락전 불단에서 비로소 대좌의 안치, 공양물의 진설, 수장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선 후기 불단의 특징이 완전히 구비된 불단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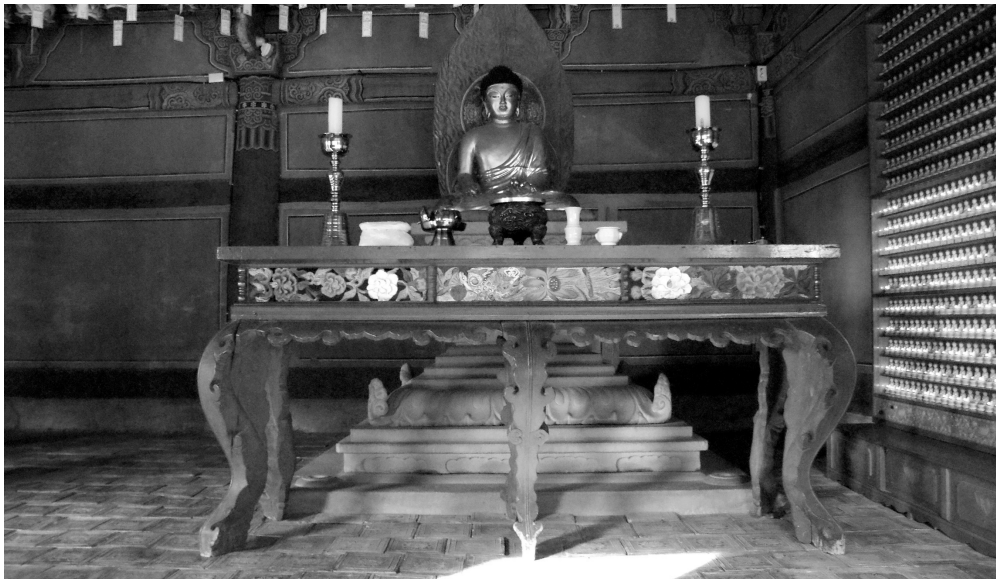
그러나 15세기에 조성된 명문 기록을 수반한 불단이 원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는 무위사 극락전 이외에 아직 더 발견되지 않아서, 무위사 극락전 불단 이후 임진왜란까지 얼마나 많은 불단이 더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4세기 이전에 건립된 불전 안에 불단이 없이 설치되었던 대좌를 가리개 형태로 감싸 만든 간략한 불단의 예인 포항 보경사 적광전의 1569년 작 불단 등을 통해 16세기에 건립된 불전에도 불단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확인

<sup>4</sup> 「康津 無爲寺 極樂殿 造成記」 1430년, 上樑道理에 墨書 (고경스님 석문): “宣德五年五月廿五日……大化主普□……指諭孝寧……施主前左朗金賢前白雲寺住持大選訓順……”; 「康津 無爲寺 大雄殿 後佛壁畫 造成記」 1476년, 후불벽 좌우 하단에 묵서 (고경스님 석문): “□□十二年丙申三月初吉畫成無量壽如來觀世音地藏菩薩…….” 宣德 5년은 1430년, 丙申년은 成化 12년인 1476년으로 비정된다.

<sup>5</sup> 이강근, 앞의 논문, pp. 41-43; 허상호 앞의 논문, pp. 41-43.

할 수 있을 뿐이다(도5, 6). 그렇지만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 재건된 불전들에는 모두 완전한 기능을 갖춘 불단이 예외 없이 설치되었던 것을 보면,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에는 이미 불단이 불전 내의 통상적인 구조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 조성된 불단이 15세기에 건립된 무위사 극락전 불단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불전 안에서 불단의 점유비가 높아진 점이다.<sup>6</sup> 15세기에 제작된 무위사 극락전의 불단은 불전 안에서의 점유 비율이 7%에 불과하였지만, 17세기 전반에는 1605년 완주 화암사 극락전 불단이 13%, 1612년에 제작된 진주 청곡사 대웅전 불단이 9%, 1621년에 제작된 전등사 대웅전 불단이 17%, 화엄사 대웅전 불단이 21% 등으로 점유비가 매우 높은 불전들이 생겨났으며, 전체 평균도 11%로 늘어났다. 17세기 후반에는 개암사 대웅전 불단이 18%, 범어사 대웅전 불단이 24% 등으로 더욱 높아졌으며 전체 평균도 16%로 높아졌다.<sup>7</sup> 이처럼 17세기 들어 불단의 면적이 급격하게 넓어진 이유는 공양이나 의식에 소용되는



도7 <전돌마당>, 高麗, 靑陽 長谷寺 上大雄殿 (송은석)

<sup>6</sup> 김홍주, 「18세기 寺刹 佛殿의 건축적 특성」(연세대학교대 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p. 33; 허상호, 앞의 논문(2002), p. 126.

<sup>7</sup> 허상호, 앞의 논문, p. 127, 표 IV-8.

<sup>8</sup> 이강근, 앞의 논문, p. 143; 허상호, 앞의 논문, pp. 125-126 참조.

불구를 진설하기 위한 천판의 넓이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는 불전 안에서 행해지는 의식이나 의례의 횟수와 규모가 증가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sup>8</sup>

## 2) 마루의 상용과 이주법의 성행

17세기에 재건된 불전의 바닥에는 거의 대부분 마루가 설치되었다. 17세기에 재건된 불전 가운데에서도 구례 화엄사 각황전이나 보은 범주사 팔상전같이 전돌이 설치된 불전들도 있지만, 이런 불전에도 예불을 위해서 이동식 마루가 사용되었다고 한다.<sup>9</sup> 이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청양 장곡사 상대웅전 그리고 강진 무위사 극락전 등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까지 사이에 건립되어 현존하는 모든 불전에 전돌이 깔려 있으며(도7), 불국사 講堂址나 毘盧殿址 등 발굴을 통해 확인된 신라시대 불전에도 전돌이 깔려 있던 사실과 대비되는 17세기 이후에 건립된 불전의 특징이다.<sup>10</sup> 그런데 이들 전돌이 깔려 있던 불전들에도 어느 시기인지는 몰라도 전돌 위로 마루가 설치되었는데, 17세기의 재건 불전에 전면적으로 마루가 설치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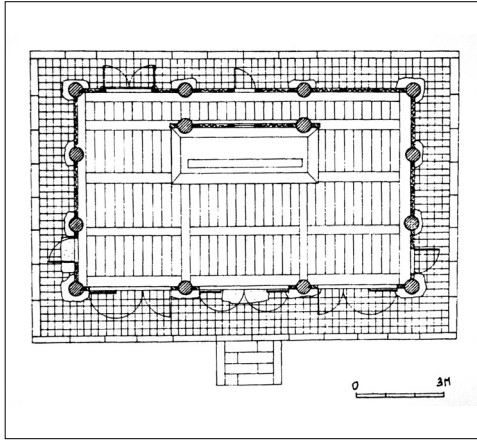
불전의 바닥에 마루가 깔리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고려 말기인 1325-26년 사이에 禪源寺의 毘盧殿을 확장하였을 당시, 불전 바닥이 넓어졌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고려 말인 14세기에 마루가 설치된 불전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sup>11</sup> 그러나 선원사 비로전처럼 마루가 설치된 불전이 존재하였다고 하여 14세기 당시에 마루가 일반적으로 성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현존하는 고려시대 불전들은 모두 바닥에 전돌을 설치한 불전들이며, 조선 초기인 15세기에 세워진 무위사 극락전도 전돌을 설치한 불전이었기 때문이다.<sup>12</sup> 지금으로서는 15세기까지는 전돌이 설치된 불전이 일반적이었고, 17세기부터는 마루가 설치된 불전이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

<sup>9</sup>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求禮 華嚴寺 實測調査 報告書』(1986), p. 284; 이강근, 앞의 논문, pp. 2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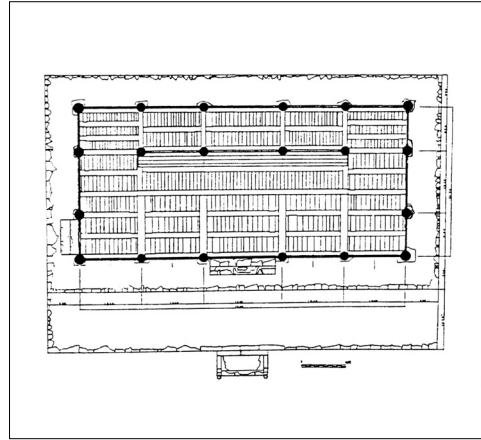
<sup>10</sup> 이강근, 앞의 논문, p. 29.

<sup>11</sup> 息影庵, 『禪源寺毘盧殿丹青記』, 1327년 (『국역동문선』 65 및 『東文選』 65 所收, 이강근, 앞의 논문, p. 29에서 재인용): “.....설봉화상이 다음으로 주지의 자리를 계승하여 이 전각을 보고 말하기를, ‘전당은 정말 화려하나 건물이 작고 낮으며 비좁아서, 스님을 얼마 수용하지 못하니 절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하고, 드디어 그 밑에 있는 널판을 몇 치쯤 빼내고 그 남쪽으로 세운 기둥을 몇 자쯤 넓히어 그 위에 있는 대들보와 연결시키고 그 중간에 세웠던 받침 기둥을 뽑아버려서 넓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스님을 1백 2, 30 명은 앉힐 수 있게 되었다.....”; “.....雪峯和尚次繼席。都炫殿曰。殿言華靡。然屋小卑且狹。容僧少。不稱寺。遂令階墜其下板數寸。擴其南楹數尺。接其其梁。拔斥其中。使恢廓。然後可坐僧百三二十.....”

<sup>12</sup> 國立博物館, 『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 보고서』(1958), pp. 20-21.



도8 〈移柱法〉, 1682년, 靑松 大興寺 普光殿  
(배병선, 「多包系맞배집에 關한 研究」)



도9 〈正置法〉, 1614년, 高敞 禪雲寺 大雄殿  
(韓國의 古建築)

진왜란 이전인 조선 전기 어느 시점에 마루 설치가 성행하기 시작하여 임진왜란 직후 17세기에는 일반적인 관습으로 굳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추정은 앞에서 살펴본 불단이 15세기에 불전 안에 설치되기 시작하여 17세기에 일반화된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으로 주목된다.

불전 내부의 구조에서 일어난 또 다른 주요 변화는 불단의 위치가 점차 뒷벽 쪽으로 물러나는 이주법이 성행한 점이다(도8). 불전 측면의 기둥열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 기둥열의 연장선상에 맞춰 내부에 高柱가 놓이고, 그 기둥에 의지해 불단이 설치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내부 고주를 측면 기둥열의 연장선상보다 뒤쪽으로 물리면서 불단과 후불벽도 함께 뒤쪽으로 이동시킨 불전인 것이다. 건축사학계에서는 이들 기둥을 옮긴 기법을 移柱法이라 하며, 기둥열의 연장선상에 일치시킨 기법인 正置法과 구별하고 있다(도9).<sup>13</sup> 건축사학계에서는 또한 17-18세기에 정치법의 불전보다 이주법의 불전이 점차 늘어났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밝혀놓았는데, 17세기에 지어진 불전에서는 약 50% 정도에서 이주법이 시행되었으며, 18세기 불전에서는 이주법이 더욱 성행하여 약 60%를 이루었다고 한다.<sup>14</sup>

<sup>13</sup> 裴秉宣, 「多包系맞배집에 關한 研究」(서울대학교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8), pp. 121-124.

<sup>14</sup> 김홍주, 앞의 논문, p. 33.

## 2. 법회의 활성화

불단의 면적이 늘어났고, 불단이 뒤쪽으로 물러났으며, 마루가 전면적으로 설치되었던 17세기의 불전은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

조선시대 불교는 정부의 지속적인 抑佛정책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사원경제의 토대도 점차 무너져 갔다. 삼국시대 이래 1000여 년 동안 국가운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불교는 조선시대에 들어서서는 국가 운영은 물론 사회적인 영향력도 크게 축소되어, 신앙적 영역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계는 적극적으로 생존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민간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 민간의 참여를 확대 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여러 민간신앙을 흡수하였고, 염불과 다라니를 외는 기복신앙을 위주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물질·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수륙제, 천도제 등 민심 위무의 역할을 담당할 불교계는 그 이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는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재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불교의 성격은 여러 분야에서 확인된다. 陀羅尼, 眞言集, 儀式集 등 밀교적인 불교 서적이 한글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祈福佛敎에 소용되는 책자들이었다.<sup>15</sup> 이는 불교의 주요 후원자층으로 세로이 등장하였던 일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불교에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조선 전기 불사의 募緣文이나 發願文에 등장하였던 왕실과 관련되었거나 사대부가의 인물들이 조선 후기인 17세기의 복장발원문이나 상량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일반 백성들이나 승려들만이 등장하는 것도 이같은 불교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sup>16</sup> 하나의 전각, 하나의 불상과 불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적게는 수십 명 많

<sup>15</sup> 洪閔植, 「朝鮮時代 眞言集의 刊行과 儀式의 密敎化」, 『韓國密敎思想研究』(佛敎文化研究院, 1986), p. 451; 南希淑,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8), pp. 51-112.

<sup>16</sup> 조선 초기인 1395년 肅德 莊陸寺의 <간칠보살좌상>을 조성할 당시에 영해 부사, 判事, 밀양군부인, 단양군부인, 개성군부인 등 사대부가의 인물들이 시주하였으며, 1458년 영주 黑石寺의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조성할 때에는 懿齊宮權氏, 明嬪宮金氏, 孝寧大君, 筵昌尉 등 왕실 인물들이 발원하였고, 1466년 평창 上院寺의 <목조문수동자좌상>을 조성할 때에는 河城尉 顯顯祖와 懿淑公主 등이 발원하는 등 왕실과 사대부가 발원한 불사들이 많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인 17세기 이후에는 대부분 승려와 일반 백성들의 시주로 불상이 조성되었으며, 慈壽寺·仁壽寺나 회성 龍珠寺 등 일부 왕실과 특수한 관련이 있는 불사에서 제한적으로 왕실 관련 인물이 관여하였다.

게는 수백 명의 시주자들이 참여하여야 했던 17세기 이후의 불교계 상황은 분명 그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한 불사에 참여하는 시주자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사실은 그만큼 개별적 시주자들의 시주 액수는 줄어든 것이며, 사찰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교가 행할 종교적 서비스는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경제력이 낮은 일반 대중들에게서 사찰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시주를 확보하려면 신도들을 위해서 천도계를 비롯한 법회도 많이 열어야 하였을 것이다. 조선 전기까지는 도성 안이나 개천변 등 넓은 공터에 野壇을 차리고 행하던 法席이 조선 후기에는 더 이상 행해질 수 없었으며, 모든 불교관련 행사는 사찰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었다. 신도들이 많이 모이는 靈山齋나 水陸齋같이 큰 법회가 개최되는 장소는 사찰 중앙의 마당인 中庭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中庭에서 행해진 야외 법회에 대형 掛佛이 사용된 시기도 17세기 전반 불교의 대중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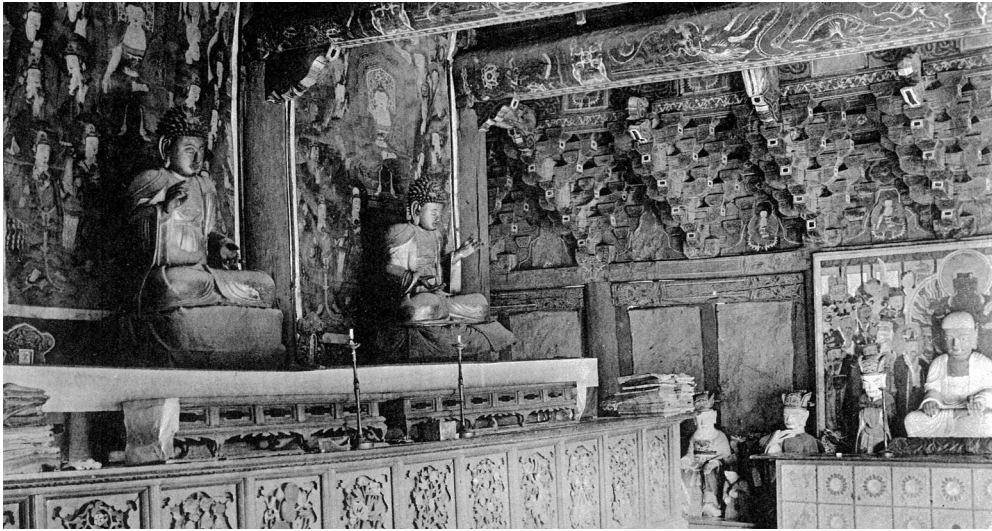
야외에서 열 정도로 크지 않은 작은 법회와 의식들은 대부분 대웅전 등의 중심 전각에서 치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불전 바닥에 마루를 깔고, 불단 앞면을 넓게 확보한 것은 불전 내부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기 편하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추정되기 때문이다.<sup>18</sup> 실제로 임진왜란 후 17세기에 재건된 사찰 내에서 대웅전을 비롯한 중심 전각은 크고 작은 여러 의식과 예불이 행해지던 복합적인 공간으로 변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전기까지 야외에서 또는 별도의 전각을 건립하여 시행하였던 수륙제 등의 법회가 불교의 쇠퇴에 따라 사찰 건물 안으로 축소되어 시행된 사실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17세기에 세워진 대웅전에는 북벽에 주존불을 비롯한 불보살상과 후불탱이 봉안된 ‘주존에 대한 예불과 설법의 공간’이 설치된 점은 이전 시기와 같다. 그런데 좌우측벽에도 별도의 예불 공간이 설치된 것은 이전 시기와 다른 점일 것이다. 좌우측벽에는 제석탱 등의 신중탱이 안치된 ‘도량수호의 공간’이나, 지장탱·감로탱 등이 안치된 ‘冥福을 비는 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sup>19</sup> 이들은 삼단 배치법으로 불렸는데, 1496년에 간행된 의식집인 『眞言勸供』에서 三壇의 배치법이 언급된 이래 임진왜란 이후인 1661년에 간행된 『梵音集』 등에도 삼단이 언급되어 있다. 上壇을 佛壇, 中壇을 神衆壇, 下壇을 靈壇으로 구분하기도 하였으며, 불단, 명부단, 영가단으로 또는 지장단, 영가단, 사자단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sup>20</sup> 17-18세기에 새로 건

<sup>17</sup> 鄭明熙, 「朝鮮後期掛佛幀畫의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12), pp. 11-20.

<sup>18</sup> 이강근, 앞의 논문, p. 29; 김홍주, 앞의 논문, p. 30.

<sup>19</sup> 金奉烈,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8), pp. 111-113.

<sup>20</sup> 洪潤植, 「韓國佛敎儀式의 三壇分壇法」, 『文化財』3(문화재관리국, 1975, 12), p. 32.



도10 <大雄殿의 제 불단>, 慶山 環城寺 大雄殿 (『朝鮮古蹟圖譜』)

립된 사찰의 대웅전은 기본적으로는 석가불을 모신 불전이었지만, 별도의 예배공간이 없었던 神衆과 靈駕를 대웅전에 함께 모시게 됨으로써, 다수의 예배단이 함께 설치된 복합불전의 기능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도10).

이처럼 17세기 재건된 불전은 이전 시기보다 많은 신도와 시주자들이 법회 등의 이유로 좀더 자주 찾는 공간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웅전 내부에서 치러지는 의식이 중요해지고 점차 많아지면서 불단에 올리는 공양물의 양도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불단이 점차 넓어져 불전 내부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늘어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의식을 치러야 하고 의식의 비중에 비례해 불단의 면적도 넓어지자, 한정된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대두하였을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한정된 내부 공간 안에서 다수의 신도들이 참여하는 예불과 의식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중앙에 설치된 불단의 크기를 축소하거나 뒤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구와 공양물의 진설을 위하여 불단의 넓이가 지속적으로 넓어졌다는 점을 환기한다면, 공간 확보를 위한 해결책은 불단을 뒤로 이동시키는 방법뿐이었을 것이다. 17세기 불전의 바닥에 마루가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한 시점이 예불과 법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불단을 이동시켰던 시기와 일치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건축물에서 바닥이 마루인가 전돌인가 하는 문제는 불전 내부의 활동성의 많고 적음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



도11 <大雄殿의 佛壇과 後佛幀畫>  
 불단: 1658년, 불상: 1661년, 불화: 1882년  
 釜山 梵魚寺 大雄殿 (『梵魚寺聖寶博物館 名品  
 圖錄』)



도12 <塑造佛坐像과 光背>, 高麗,  
 榮州 浮石寺 無量壽殿 (문화재청)

마루를 설치함으로써 17세기 불전 내에서는 보다 원활한 법회와 예불 행위가 가능해졌을 것임을 자명한 사실이다.<sup>21)</sup>

실내 법회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17세기에 세워진 불전에는 불상의 광배가 설치되지 않았고, 후불벽화나 후불탱화가 불상의 뒤를 장엄하고 있다는 것이다(도11). 광배가 사라지고 후불벽화나 탱화가 등장한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려 중기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塑造佛坐像>이 광배를 갖고 있었던 반면, 조선 초 1435년의 중창 기록을 갖고 있는 안동 鳳停寺 대웅전과 1476년에 제작된 후불벽을 갖고 있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에는 이미 광배가 사라져버리고 후불벽화가 광배를 대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도12, 13). 조선 초기 이전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후불벽화가 광배를 대치한 시기는 늦어도 조선 초기인 15세기경에는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후불벽화나 후불탱화가 언제부터 모든 사찰에

21) 이강근 앞의 논문, p. 29.



도13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後佛壁畫〉 벽화: 1476년,  
불상: 1478년,  
康津 無爲寺 極樂殿  
(『한국의 사찰문화재』)

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임진왜란으로 16세기 이전의 불전 대부분이 파괴되어 그 변화양상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7세기에 재건된 대부분의 불전에서는 불상의 광배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으며 후불탱화가 일반화되었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16세기에는 광배 대신 후불탱화나 후불벽화가 설치된 불전이 대세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후불탱화나 후불벽화가 어느 정도는 광배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후불탱화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광배에는 없었던 수많은 불교 존상들이 그림으로 화현하여 있는 것이다. 후불탱화의 주된 소재인 영산회, 극락회 등의 구도와 제재가 이미 고려불화에 등장하였고 조선시대 후불탱이 고려불화에서 변화 발전한 것은 틀림없지만, 고려불화의 쓰임새와 조선시대 후불탱의 쓰임새는 그懸掛되는 장소와 크기의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세로로 길고 폭이 좁으며 크기도 작은 일반적인 고려불화가 가로로 길고 크기도 크며 불전에 상시 봉안되어 있는 조선시대 후불탱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여러 의식 관련 서적들에 의하면, 의식을 시작할 때 다양한 불교 神格을 奉請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좁은 불전 내부에서 봉청하는 데 쓰일 다양한 신격을 조각으로 조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맞게 그림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광배 대신 후불탱화를 조성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세조에서 연산군

대에 이르기까지 활동한 조선 초기의 고승인 學祖가 1496년 한글로 번역한 『진언권공』의 作法節次에는 관음보살을 청한 후에 ‘법화거불’과 ‘화엄거불’ 등을 진행하는 순서가 있는데, ‘법화거불’의 경우, 영산교주석가모니불, 증청묘법다보여래, 극락도사아미타불 등을 청한 후, 문수보현대보살, 관음세지대보살 등 협시보살을 청하며, 맨 마지막에는 “영산회상불보살”을 청하도록 하고 있다.<sup>22</sup> ‘화엄거불’의 경우에도, 먼저 화엄교주비로자나불, 원만보신노사나불, 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 등 三身佛을 청하고, 보현문수대보살, 관음세지대보살을 청한 후, 마지막에는 역시 “화엄회상불보살”이라 하여 화엄회에 참여한 모든 불보살을 거명하도록 하고 있다.<sup>23</sup> 이 같은 법식은 뒤에 나오는 ‘미타참’에서도 마지막에 “미타회상불보살”이라 하여 극락회상의 여러 불보살을 거론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舉佛義式’은 ‘영산제’를 거행하는 의식 절차를 수록한 『靈山大會作法節次』에도 똑같이 나타나 있다.<sup>24</sup> 즉, 법화거불, 화엄거불, 미타참거불 등의 절차가 『진언권공』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며, 각 거불의 마지막에는 항상 영산회상불보살, 화엄회상불보살 등 수많은 불보살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sup>25</sup> 영산제, 수록제 등 조선시대에 많이 행해진 법회에서는 하나같이 ‘영산회상도, 극락회상도, 화엄회상도’ 등 대웅전에 현괘된 불화들에 등장하는 불보살들이 거명되는 절차가 있었다. 즉, 대웅전 내에서 행해진 법회와 의식들에 필요한 불보살상의 수요는 그 이전 시기보다 훨씬 많아졌던 것이며, 광배를 대신하여 후불벽화와 후불탱화가 등장한 이유는 이처럼 법회에 소용되는 불보살상을 시각화하여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또한 영산회상도, 극락회상도, 화엄회상도, 감로탱 등 대웅전 안에 걸렸던 다양한 불화들의 존재는 대웅전 내에서 상당히 많은 법회들이 행해졌음을 반증해 주기도 한다.

<sup>22</sup> 學祖 譯, 『진언권공』, 韓國佛敎禮儀資料叢書 1 (保景文化社, 1993), pp. 451-452: “차거불 법화즉 령산교주석가모니불 중형 묘법다보여래 극락도사아미타불 문수보현대보살 관음세지대보살 령산회상불보살 次舉佛 法華則靈山教主釋迦牟尼佛 證聽妙法多寶如來 極樂導師阿彌陀佛 文殊普賢大菩薩 觀音勢至大菩薩 靈山上佛菩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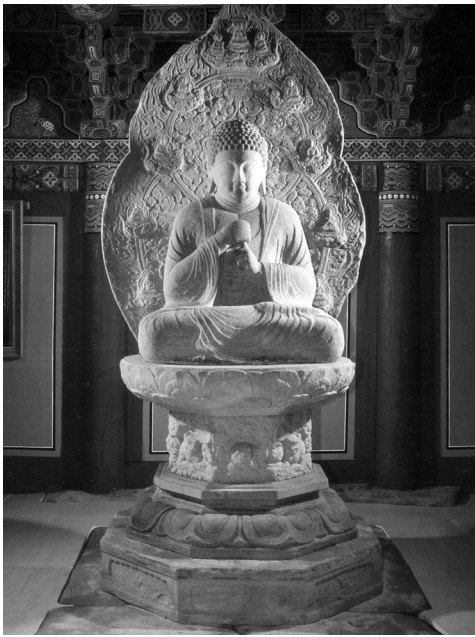
<sup>23</sup> 위의 책, p. 452: “화엄즉 화엄교주비로차나불 원만보신노사나불 천백억화신석가모니불 보현문수대보살 관음세지대보살 화엄회상불보살 華嚴則 華嚴教主毘盧遮那佛 圓滿報身盧舍那佛 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 普賢文殊大菩薩 觀音勢至大菩薩 華嚴會上佛菩薩.”

<sup>24</sup> 1634년 경기도 湖亭의 水淸山 龍腹寺에서 간행된 목판본.

<sup>25</sup> 編者未詳, 『靈山大會作法節次』, 韓國佛敎禮儀資料叢書 2 (保景文化社, 1993), p. 133.

### III. 불단의 높이 변화와 불상의 조형성

17세기에는 불전 내부에서 일어난 平面의 변화와 더불어 立面의 변화도 일어났다. 불단의 天板 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寶壇이 올랐으며, 천판 또는 보단 위로는 높은 대좌가 올라 있고, 그 위에 비로소 불상이 안치되었다.<sup>26</sup> 예불과 의식에 사용될 공양물을 진설하기 위하여 平面적으로 넓어진 불단이 이제 立面的으로도 함께 높아지게 된 것이다. 불전의 중앙에 불상이 안치될 높은 불단이 설치된 것은 봉정사 극락전 불단과 무위사 극락전 불단 등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인 15세기에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불단의 설치는 17세기부터라 할 수 있다. 또한 17세기의 불단은 천판 위에 보단이 설치되는 사례가 많아졌고 대좌의 높이도 더욱 높아져, 불상이 안치되는 높이는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도14 〈石造毘盧遮那佛坐像〉, 新羅 9세기,  
全高 309.0cm, 大邱 桐華寺 毘盧庵  
(『한국의 사찰문화재』)



도15 〈石造毘盧遮那佛坐像〉, 高麗, 全高 201.0cm,  
醴泉 靑龍寺 大雄殿 (『한국의 사찰문화재』)

<sup>26</sup> 寶壇은 天板 위에 올려져 있으며, 한 단 또는 두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이다. 보단 위에는 바로 불상 대좌가 올라 있다는 점에서 공양물 진설과 장엄을 위한 구조물인 補卓과 구별된다.



도16 〈塑造佛坐像〉, 朝鮮 15세기, 高 135.0 膝幅 107.7cm, 洪城 高山寺 大光殿 (송은석)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불단이 설치되지 않았던 대부분의 불전에서는 약 1m 내외의 비교적 낮은 높이의 대좌에 불상이 봉안되었다. 통일신라 9세기 작품인 대구 桐華寺 비로암에는 113cm의 대좌에 126cm의 불상이 올라 있어, 상과 대좌를 합한 전체 높이는 239cm이다(도 14).<sup>27</sup> 고려시대에 조성된 예천 靑龍寺 대웅전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대좌의 높이가 89cm이며, 불상은 112cm로 상과 대좌를 합친 전체의 높이는 201cm이다(도 15).<sup>28</sup> 또 다른 고려시대 불상인 영주 浮石寺 무량수전의 〈소조불좌상〉도 불단 없이 118cm 높이의 대좌에 276cm의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sup>29</sup> 조선 초기의 예로는 홍성 고산사 대광전의 〈소조불좌상〉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불단은 설치되지 않았으며, 돌로 만든 91cm의 대좌 위에 135cm의 불상이 봉안되어 전체 높이는 226cm에 이른다(도 3, 16).<sup>30</sup> 통일신라에서 조선 초기까지 불단이 설치되지 않은 불상들은 대략 낮으면 70cm 정도에서 높으면 120cm 높이의

<sup>27</sup>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1(2007), p. 96.

<sup>28</sup>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남도 III(2006), p. 65.

<sup>29</sup>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 II-2(2008), p. 106.

<sup>30</sup> 문화재청·(재)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남도·대전광역시(2004), p. 501.

대좌에 안치되었으며, 불상과 대좌를 포함한 전체 높이는 대부분 3m를 넘지 않았다. 이들 불상들은 상체와 머리를 깨끗이 세우고 어깨는 넓고 당당하게 펴고 있는 모습으로 조선 후기 불상들과 매우 다른 조형을 보이고 있다(도16).

표 불단의 점유비와 높이

불전	불단 불상	연대	점유비	천판	보단	불단	대좌	불단+대좌	불상	총고
홍성 고산사	석조대좌	15세기	×	×	×	×	91.3	91.3		
대광보전	소조아미타불좌상	15세기							135.0	226.3
강진 무위사	불단 정치법	1430년	0.07	82.0	×	82.0	71.4	153.4		
극락전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미타)	1478년							110.0	263.4
강화전등사	불단 이주법	1621년	0.17	93.0	22.0	115.0	51.0	166.0		
대웅전	목조삼방불좌상(석가)	1623년							140.0	306.0
창녕 관룡사	불단 이주법	1618년	0.09	108.0	×	108.0	85.0	193.0		
대웅전	목조삼방불좌상(석가)	1629년							160.0	353.0
하동 쌍계사	불단 이주법	1632년	0.13	124.0	25.5	149.5	79.3	228.8		
대웅전	목조삼방불좌상(석가)	1639년							186.5	415.3
구례 화엄사	불단 이주법	1636년	0.21	108.0	28.0	136.0	119.0	255.0		
대웅전	목조삼신불좌상(비로)	1636년							279.0	535.0
김천 직지사	불단 이주법	1651년	0.13	108.0	21.0	129.0	85.0	214.0		
대웅전	목조삼방불좌상(석가)	17세기							132.8	346.8
부산 범어사	불단 정치법	1658년	0.24	117.5	33.0	150.5	53.0	203.5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석가)	1661년							135.0	338.5
대구 동화사	불단 이주법	1727년	0.15	99.0	31.0	130.0	52.0	182.0		
대웅전	목조삼방불좌상(석가)	1727년							145.0	327.0

조선 초기에 불단이 설치되면서 불상은 좀더 높은 위치에 봉안되기 시작하였다. 1430년에 조성된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불단은 높이가 82cm이며 대좌의 높이는 71cm로 1478년에 조성된 아미타상은 153cm 위에 봉안되어 있어, 110cm 크기의 불상과 합한 전체 높이는 263cm 가량에 달한다(표). 그러나 불단이 설치되지 않은 불상들에 비해 불상이 봉안되는 전체의 높이는 다소 높아졌지만, 17세기 불상들에 비하여 아직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 머물고



도 17 女眞, 〈木造三方佛坐像과 佛壇〉  
 불단: 1618년, 불상: 1629년,  
 佛壇高 108.0, 釋迦高: 160.0cm,  
 昌寧 觀龍寺大雄殿 (송은석)

있었다. 불상이 봉안되는 높이가 아직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무위사 아미타상도 홍성 고산사 불상의 조형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 15세기 불상들은 아직 전체적으로는 13세기 작으로 추정되는 화성 봉림사 아미타상의 전통을 그대로 잇고 있는 모습이다.<sup>31</sup>

전면적으로 불단이 설치되던 17세기에 불단과 대좌의 전체 높이가 좀더 높아지면서 불상의 조형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1618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창녕 觀龍寺 대웅전의 불단은 높이가 108cm이며 그 위에 85cm의 대좌가 놓여, 불상은 193cm 높이에 봉안되었으며, 160cm의 불상을 합한 전체 높이는 353cm에 달한다(도17).<sup>32</sup> 또한 1632년에 완성된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불단은 천판과 보단을 합친 높이가 150cm이며 여기에 79cm의 대좌가 합해져 불상이 놓인 위치는 229cm이며, 187cm의 불상과 합한 전체 높이는 416cm에 달한다(표).

이렇듯 17세기 이후에는 모든 불전에 불단과 대좌의 높이를 합친 불상이 놓이는 위치가 그 이전 15세기와 비교해서도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론 17세기 초반 소조

<sup>31</sup> 불단의 불전 내 점유비는 허상호, 앞의 논문, p. 127, 표 IV-8을 인용하였으며, 불단 각부와 불상의 높이는 허상호 논문과 계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조사 자료, 그리고 필자의 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보정하였다.

<sup>32</sup> 관룡사 대웅전은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후 1617-1618년에 재건되었으며, 1704년 낙뢰와 폭우로 또 다시 파손을 입었으나 1712년 다시 세워졌고(申維翰 『嶺南昌寧縣火王山觀龍寺事蹟』[1733], pp. 3-5), 1749년 또 다시 중수되었다(觀龍寺大雄殿上樑記[1749]; 金周泰 「觀龍寺大雄殿上樑文」, 『考古美術』 63·64 [1965, 11]; 51-100호 합집 [1979], pp. 141-142). 한편 대좌의 기록에 의해 불상은 1629년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좌와 불상이 온전했던 점으로 미루어 1704년의 홍수로 인한 피해는 불단에는 거의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로 조성된 5m가 넘는 대불은 제외한 수치이다. <표>에서 보듯이 17세기 이후 불상이 놓이는 위치는, 낮으면 강화 전등사 대웅전의 166cm, 높으면 화엄사 대웅전의 255cm에 달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200cm 전후의 높이를 갖고 있다. 또한 불단과 대좌에 불상까지 합친 전체 높이는 모두 3m 이상이며, 사찰 주전각의 주존불은 대부분은 350cm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시기 불상이 이처럼 높게 봉안된 원인은 불단이 설치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불단 위에 놓인 보단과 대좌도 15세기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17세기에 들어 급격히 높아졌던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의 불단이 왜 이처럼 높게 장엄되어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해답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불단을 높였다는 것은 불상을 좀더 높은 곳에 안치하려는 의도였을 터인데, 왜 17세기에는 그 이전 시기와 달리 불상을 좀더 높은 곳에 올려두어야 하였을까? 필자는 그 이유를 좁은 공간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불상을 대할 때, 부처를 외경하는 마음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17세기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불전에서 법회에 참여하였을 것이기에, 이전보다 가까워서 불상을 대하였을 것이다.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예배상과 예배자는 매우 높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예배상에 대한 외경심은 건물 밖에서 예배할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불전 안에서 행해지는 예불·의식에 쓰일 공양물을 진설하기 위해 불단의 면적이 점차 넓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좀더 넓은 예배·의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단과 뒷기둥을 뒤쪽으로 밀어내는 이주법이 사용되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런 조치만으로는 좁은 공간 내에서 그것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불상을 대하여야 할 예배자들에게 존엄한 부처의 위엄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상을 만나게 된 예배자들에게 외경심을 조금이나마 강하게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불단을 중심으로 한 聖世界에 온갖 장엄을 하여 俗世界와 다른 성스러운 세계를 구현하려 한 점이며, 다른 하나는 불단 위에 한 두 단의 보조적인 단을 더 올리고 나서 더욱 높은 대좌를 설치한 후 불상을 봉안한 점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예배자들이 불상을 우러러 보고 존엄함을 느끼게 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특히 15세기 불상들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높은 위치에 오른 불상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하더라도 상당한 위엄과 권위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17세기의 불전 내부 공간 변화는 마침내 좁은 공간 내에서 매우 높은 위치에 불상이 놓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되자 불상은 더 이상 조선 초기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상체와 머리가 곳곳이 서 있고, 똑바로 정면을 향한 얼굴을 한 고려



도18 〈木造藥師佛坐像 平觀과 仰觀〉, 1677년, 高 107.5 膝幅 72.5cm, 全州 日出庵 (송은석)

또는 조선 전기 양식의 불상이 17세기에 제작된 높은 불단과 대좌 위에 올려 봉안되었을 때에는 예배자들이 불상의 원만한 상호를 배관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17세기의 불상들이 몸체에 비해 큰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움크린 모습을 갖게 된 데에는 이 같은 불전 내부의 상황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머리가 몸체보다 커야 가까운 거리에서 높이 봉안된 불상을 올려 보더라도 몸체와 적당한 비례로 보일 것이며,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예배자들이 불상의 얼굴과 눈을 똑바로 배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15세기 이전의 불상이 17세기 불단처럼 높은 위치에 봉안된다면, 머리는 실제보다 훨씬 작아 보이고, 얼굴은 왜곡되어 보일 것이다. 또한 조선 후기의 불상을 2m 내외의 높은 위치에 봉안하지 않고 조선 전기 이전처럼 1m 내외의 낮은 곳에 봉안하였다면 상호의 왜곡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도18).

조선 전기의 극히 일부 불상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이 같은 경향은 17세기에 들어 완전히 정착하였으며, 18-19세기의 불상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움츠린 것 같은 상체와 머리, 몸체에 비해 큰 머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 후기 불상은 조선시대 불교의 위축으로 인한 조각가들의 실력이 떨어진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요인은 불상 봉안의 위치 변화에 맞추어 불상의 원만한 상호를 구현하려는 조각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 IV. 결론

임진왜란 이후 17-18세기에 재건된 불전들은 임진왜란 이전에 지어진 불전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 불전 중앙에는 장방형 평면을 갖고 있는 넓고 높은 불단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불단 주변 바닥에는 전돌 대신 마루가 고르게 깔려 있었다. 불단의 뒤쪽으로는 양 옆에 높고 가는 기둥이 서 있었으며 두 기둥 사이에 불단을 의지하여 세워진 장방형의 벽체에는 수많은 불보살이 그려진 탕화나 벽화가 자리하였다. 또한 후불벽과 불단이 불전의 뒤쪽으로 옮겨진 이주법이 시행된 불전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현존하는 17세기 불전의 50%와 18세기 불전의 60%에 달할 정도였다. 불전 내부를 구성하는 불단, 후불벽, 바닥 등은 조선 전기의 불전과 구별되는 요소들인데, 이들은 조선 후기 대중화한 불교와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불상의 조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불교는 지속적으로 퇴조하여 사회적 역할은 줄고 종교적 역할만이 남겨져 있었다. 사원경제를 받쳐주는 시주자들은 왕실이나 사대부층 신도들을 대신하여 일반 백성들이 맡게 되었으며, 법회와 의식 등에 참여하는 신도들의 수는 조선 전기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발원문이나 모연문 등에 등장하는 신도들의 신분과 숫자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조선 전기에는 고액을 시주하는 소수의 후원자들이 중심이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소액을 시주하는 다수의 후원자들이 사원경제의 주축이 되었던 것이다.

다수의 시주자들이 사찰의 불사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법회와 의식도 많이 이루어졌다. 강변이나 시가지 공터에 야단을 차리고 법석을 펼치던 조선 전기까지의 법회 형태에 비해서는 소략한 방식이었지만, 비교적 큰 법회는 불전 밖 과불을 건 中庭에서 벌어졌으며 작은 법회와 의식들은 불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의 불전에 불단이 일반적으로 설치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넓어진 것은 법회와 의식에 소용되는 공양물들을 진설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불전 내에서 치러진 법회와 의식에 참여하는 신도들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내부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마루가 전면적으로 설치되고 이주법이 성행한 것은 모두 불전 내부에서 행해진 의식이나 법회를 위해 내부 공간을 넓히기 위한 조치였다. 불전 안에서 행해진 많은 의식과 법회는 필연적으로 신도들로 하여금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불상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성스런 불상에 대한 경외심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불단 위에 보단을 덧붙이고 높은 대좌를 설치하여, 매우

높은 위치에 불상을 봉안함으로써 성스런 부처의 세계와 속인의 세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좁은 불전 안에서 2m 가량의 매우 높은 위치에 봉안된 조선 후기 불상은 1m 내외의 낮은 대좌에 봉안되었던 이전의 불상들과 조형에서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불상은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상체와 머리를 숙이고 있으며, 신체의 양감이 줄어들었으며, 사각기둥을 쌓아 놓은 듯 입체감이 약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양감과 입체감이 줄어든 조형은 고려 말 이후 지속된 조선시대 조각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판단되지만, 상체와 머리가 큰 신체 비례와 상체와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조선 후기 불상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조선 후기 사찰의 불전에서는 법회와 의식의 활성화로 인해 부족해진 공간 문제를 마루의 설치와 이주법의 시행을 통해 해결하였고, 좁은 공간에 聖俗이 혼재하여 야기된 예배상에 대한 경외심의 약화 문제를 佛壇과 臺座를 높여 聖俗을 구분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결과적으로 불상은 매우 높은 위치에 봉안되었는데, 조각가들은 낮은 대좌에 봉안되었던 이전 시기의 조형을 벗어나 새로운 조형을 창출하여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머리와 상체를 굽힌 조선 후기의 불상 조형은 예배상과 예배자 사이의 종교적 교감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조각가들의 새로운 창안이었던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_\_ 朝鮮 後期(Late Joseon Dynasty), 佛像(Buddhist Sculpture), 造形性(Formaliveness), 佛壇(Budchist Altar), 臺座(Pedestal for Buddhist Sculpture)

▮ 투고일 2009년 5월 22일 | 심사개시일 2009년 6월 4일 |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30일 ▮

## 참고문헌

### 發願文 및 原典史料

- 「康津 無爲寺 極樂殿 造成記」, 1430년.  
申維翰, 『嶺南昌寧縣火王山觀龍寺輯蹟』, 1733년.  
「盈德 莊陸寺 乾漆觀音菩薩坐像 造成發願文」, 1395년.  
「榮州 黑石寺 木造阿彌陀佛坐像 普勸文」, 1457년.  
「榮州 黑石寺 木造阿彌陀佛坐像 造成發願文」, 1458년.  
「昌寧 觀龍寺 大雄殿 上樑記」, 1749년.  
「平昌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 造成發願文」, 1466년.  
「浦項 寶鏡寺 佛壇 造成記」, 1569년.  
息影庵, 「禪源寺毘盧殿丹青記」, 1327년.  
編者未詳, 『靈山大會作法節次』, 韓國佛教義禮資料叢書2, 保景文化社, 1993.  
學祖 譯, 『진언권공』, 韓國佛教義禮資料叢書1, 保景文化社, 1993.

### 報告書

- 國立博物館, 『무위사 극락전 수리공사 보고서』, 1958.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求禮華嚴寺 實測調査 報告書』, 1986.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鳳停寺 極樂殿 修理工事報告書』, 1992.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충청남도·대전광역시, 2004.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라남도 III, 2006.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1, 2007.  
문화재청·(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I 자료집, 2007.  
문화재청·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상북도 II-2, 2008.

論著

- 金奉烈, 「朝鮮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89.
- 김홍주, 「18세기 寺刹 佛殿의 건축적 특성」, 연세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南希淑,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 裴秉宣, 「多包系맞배집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 李康根, 「17世紀佛殿의 莊嚴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 鄭弼熙, 「朝鮮後期 掛佛噴畫의 研究」,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許詳浩, 「朝鮮時代 佛卓莊嚴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 洪閔植, 「韓國佛敎儀式의 三壇分壇法」, 『文化財』 3, 문화재관리국, 1975. 12, pp. 30-37.
- \_\_\_\_\_, 「朝鮮時代 眞言集의 刊行과 儀式의 密敎化」, 『韓國密敎思想研究』, 佛敎文化研究院, 1986, pp. 417-454.

이 글은 조선 후기 불상이 몸에 비해 머리가 크며, 상체가 구부정하고, 신체의 양감과 입체감이 줄어든 이유가 불전 내부 여러 요소들의 상호 영향에 의한 것임을 밝힌 논고이다.

조선 후기에는 불교의 대중화 정책으로 불전 안에서 법회와 의식이 자주 실행되었으며, 많은 신도들이 불전에서 행해진 법회에 참석하였다. 이는 곧 불전 내부 공간의 부족으로 이어졌는데, 마루를 전면적으로 설치하고, 불단과 후불벽 그리고 내부 기둥을 뒤쪽으로 물리는 작업을 통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불전 내부에서 법회와 의식이 자주 행해지면서 일반 신도들은 불전 안 가까운 거리에서 성스런 불상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예배 상에 대한 외경심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불단에 보조적인 壇을 더하고 대좌를 높은 작업은 불상을 보다 높은 곳에 봉안함으로써 외경심을 회복하려는 조치였다고 이해된다.

좁은 불전 안에서 2m 가량의 매우 높은 위치에 봉안된 조선 후기 불상은 1m 내외의 낮은 대좌에 봉안되었던 이전의 불상들과 조형에서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불상은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상체와 머리를 숙이고 있으며, 신체의 양감이 줄어들었으며, 사각기둥을 쌓아 놓은 듯 입체감이 약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양감과 입체감이 줄어든 조형은 고려 말 이후로 지속되어 온 조선시대 조각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판단되는데, 상체와 머리가 큰 신체 비례와 상체와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조선 후기 불상만의 특징이다. 이런 특징은 높이 봉안된 불상의 바로 아래에서 올려다 볼 예배자들에게 불상의 원만한 상호를 보여주고자 하는 조각가들의 배려와 고심의 결과였던 것이다. 예배자와 예배상 사이의 종교적 교감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불상 봉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조선 후기 불상들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각가의 노력이 매우 잘 반영된 조각품일 것이다.

**Abstract**

Visual Characteristics of Late Joseon Buddhist Sculpt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Popularity of Buddhist Rituals and  
Spatial Constraints of Places of Worship

**Song Unsok\***

In this study, I argu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Buddha statues of late Joseon, such as the disproportionately large head, slightly bent upper body and the overall lack of sculptural depth and sense of volume, are the direct result of various practical considerations related to religious services performed within the sanctuaries in which they were housed.

The popularization of Buddhism reached such a level in late Joseon that lectures and rituals were frequently held in various temples across the country, with a large contingent of faithful attending. As a result, Buddhist sanctuaries soon proved too small to hold all the participants. They added on a veranda to extend the space and placed the altar, its wall and columns further into the back of the hall to create additional room. Another problem with the spatial constraints was that the faithful were brought much closer to the Buddha statue, creating an effect of familiarity with a sacred representation that ran contrary to the awe and reverence owed to Buddha. What it appears was done to remedy this issue was to elevate the altar, to create further distance and force the

---

\* Chief Curator of Songgwangsa Museum

faithful to look up to the Buddha statue.

In late Joseon, the statue of Buddha was placed at a height of about 2m from the floor, in a position more elevated than previously, by almost 1m. Buddhist sculptures of late Joseon were frequently characterized as having a disproportionately large head with both the head and upper body stooped, and lacking the sense of volume and bodily details so much so that they appear almost as though square pillars. While the deficit in sense of volume and depth was a consistent trend among Joseon sculptures, continuously observed since the late Goryeo Dynasty, the disproportionately large head and upper body and the stooped posture are characteristics that are only seen in late Joseon Buddha statues. These new features, emerged during late Joseon, may have been the consequences of the narrow and crowded space of Buddhist sanctuaries and the elevated position of the Buddha statue forcing the faithful to view the statue from a steep vertical angle. Given this particular angle of view, late-Joseon sculptors of Buddhist statues may have wanted to make Buddha's face appear gentler and more merciful. If occasioning close communication between the worshipper and the worshipped deity is the foremost goal of placing a Buddhist statue inside a worship hall, late Joseon Buddhist sculptures should be considered as successfully meeting this goal.